



2012년 11월 14일

투자전략 Daily

- 투자전략 | 노근환 ☎ 3276-6226
- 시 황 | 박소연 ☎ 3276-6176
- 글로벌전략 | 박중제 ☎ 3276-6560
- 기술적분석 | 김철중 ☎ 3276-6247
- 계량/파생 | 안 혁 ☎ 3276-6272
- 경제분석 | 전민규 ☎ 3276-6229
- 이머징마켓 | 윤향진 ☎ 3276-6280
- 채권분석 | 이정범 ☎ 3276-6191
- 크레딧 | 김기명 ☎ 3276-6206



• 투자전략

중국, 매년 11월 11일이 중요해진다

• 크레딧분석

약재 크지 않다 - 크레딧 강세 이어질 것

• 이머징마켓 동향

부동산 규제 지속, 중화권 증시 큰 폭 하락

•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 KIS 투자유망종목

단기 유망종목: 엠케이전자 외 5종목

중장기 유망종목: 삼영이엔씨 외 5종목

• 산업/기업분석

백화점, 자동차, 농심

•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증시 캘린더

주요 증시 지표 및 주체별 거래 동향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06(화)	11/07(수)	11/08(목)	11/09(금)	11/12(월)	11/13(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28.17	1,937.55	1,914.41	1,904.41	1,900.87	1,889.70	
	등락폭	19.95	9.38	-23.14	-10.00	-3.54	-11.17	
	등락종목	상승(상한)	496(4)	410(4)	270(11)	362(4)	391(7)	214(4)
		하락(하한)	335(3)	401(3)	534(1)	446(5)	436(4)	613(5)
	ADR	83.26	87.20	85.84	84.13	86.25	80.88	
	이격도	10 일	101.02	101.39	100.23	99.64	99.41	98.87
		20 일	100.18	100.69	99.54	99.09	98.97	98.52
	투자심리	60	70	60	60	50	40	
	거래량 (백만 주)	540	550	654	629	469	487	
	거래대금 (십억 원)	4,501	4,580	5,304	4,745	3,735	3,859	
코스닥	코스닥지수	517.53	518.45	519.04	519.90	521.43	513.80	
	등락폭	2.39	0.92	0.59	0.86	1.53	-7.63	
	등락종목	상승(상한)	481(10)	459(12)	382(4)	446(6)	452(9)	254(9)
		하락(하한)	440(3)	464(2)	536(4)	469(5)	475(3)	700(2)
	ADR	81.67	84.50	83.45	81.63	85.88	81.91	
	이격도	10 일	101.31	101.61	101.71	101.59	101.36	99.65
		20 일	99.67	99.99	100.26	100.62	100.99	99.68
	투자심리	70	70	80	90	100	90	
	거래량 (백만 주)	459	455	455	406	409	473	
	거래대금 (십억 원)	2,113	1,830	1,778	1,645	1,883	2,034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230.2	763.3	842.3	186.8	87.3	204.4	37.5	33.7	195.6	55.5
	매도	2,220.3	769.9	857.1	178.3	95.7	247.8	69.8	29.6	136.4	43.9
	순매수	9.9	-6.6	-14.9	8.4	-8.4	-43.4	-32.3	4.1	59.2	11.5
	11 월 누계	400.1	-121.9	-12.2	215.5	-7.8	-129.6	-24.4	40.5	346.0	-266.0
	12 년 누계	-10,677.0	13,556.0	2,043.2	1,799.3	2,554.6	-5,222.4	-45.7	458.3	2,586.5	-4,922.2
	코스닥	매수	1,850.2	67.8	117.1	24.1	15.8	39.5	5.6	4.8	24.7
매도		1,832.3	103.5	100.4	22.5	10.9	30.9	7.5	5.1	18.6	17.9
순매수		18.0	-35.7	16.7	1.6	4.9	8.6	-1.9	-0.2	6.1	1.1
11 월 누계		-29.4	-99.8	159.7	58.9	7.1	65.7	-14.5	9.7	30.8	-30.5
12 년 누계		1,063.3	14.6	-333.0	111.3	88.1	-548.7	-209.8	-28.7	252.5	-744.9

중국, 매년 11월 11일이 중요해진다

11월 월간 밴드	1,870-2,030pt
2012년 하반기 밴드	1,750-2,100pt
12MF PER	8.6배
12MF PBR	0.96배
Yield Gap	8.9%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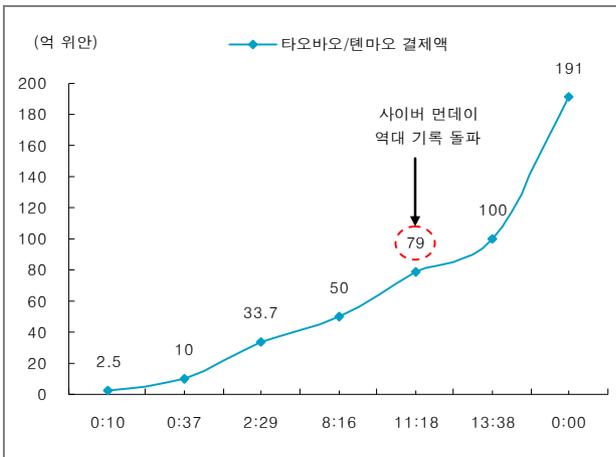
- ▶ 미국은 사이버먼데이, 중국은 쌍십일(11월 11일)
- ▶ 쌍십일이 반영하는 중국 소비 환경의 변화
- ▶ 인터넷 쇼핑, 확장적 시각으로 보자

■ 미국은 사이버먼데이, 중국은 쌍십일(11월 11일)¹

미국에 사이버먼데이가 있다면 중국에는 ‘쌍십일(双十一, 11월 11일)’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빼빼로 데이인 11월 11일,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들은 ‘쌍십일’ 할인 행사에 돌입했다. 올해 쌍십일에는 알리바바 그룹의 텐마오(天猫, B2C 쇼핑몰), 타오바오왕(淘宝网, C2C 쇼핑몰), 쉰화수안(聚划算, 소셜커머스) 뿐만 아니라 당당왕(当当网), 수닝(苏宁易购), 귀메이(国美电器网上商城) 등 여타 인터넷 종합 쇼핑몰 및 가전 쇼핑몰까지 가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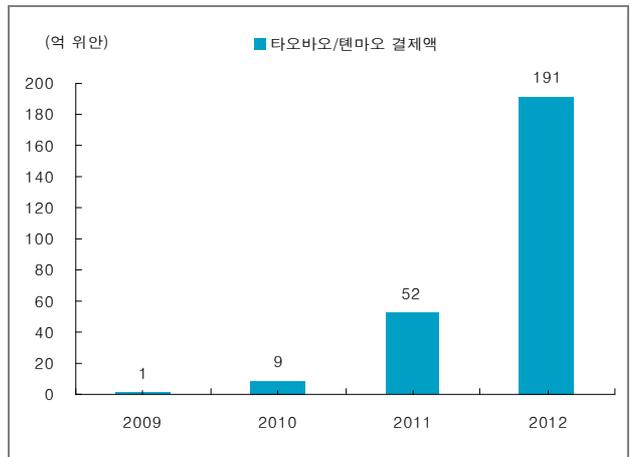
이들 인터넷 쇼핑몰은 약 1개월 전부터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가히 폭발적이었다. 중국의 가장 대표적 인터넷 쇼핑몰인 텐마오의 경우 11월 11일 0시 행사 시작 이후 최초 1분동안 약 천만명의 네티즌이 접속했다고 한다. 이는 서울 시민 전원이 동시에 접속한 것과 비슷한 엄청난 숫자이며, 순간접속량으로는 작년의 3 배에 해당하는 숫자다. 알리바바의 결제시스템인 즈푸바오(支付宝)에 집계에 따르면, 최초 10분 동안의 결제금액은 2.5억 위안을 넘어섰고, 11일 24시간동안 총 191억 위안에 달했다고 한다. 이제는 중국의 연말 소비 센터멘트를 가늠하는 새로운 척도가 될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림 1] 올해 11.11 타오바오/텐마오 결제액



자료: Baidu, 한국투자증권

[그림 2] 최근 4년간 11.11 타오바오/텐마오 결제액



자료: 인민일보,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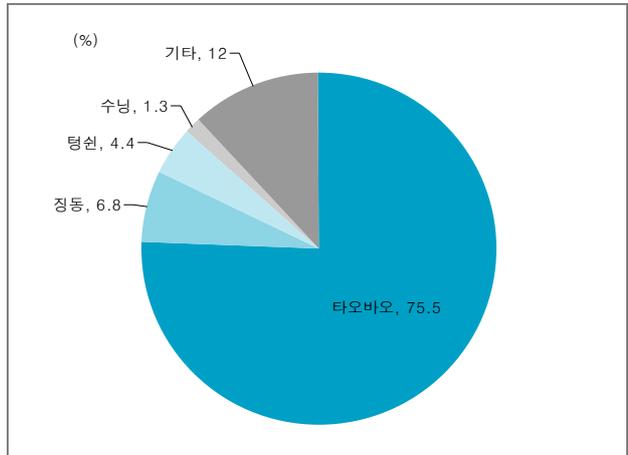
¹ 중국에서는 11월 11일을 光棍节(광군제, ‘双十一’라고도 함)라고 하며, 소위 ‘솔로데이’라고도 불리는 날임.

[그림 3] 텐마오 홈페이지



자료: Baidu, 한국투자증권

[그림 4] 12년 3분기 중국 온라인 쇼핑 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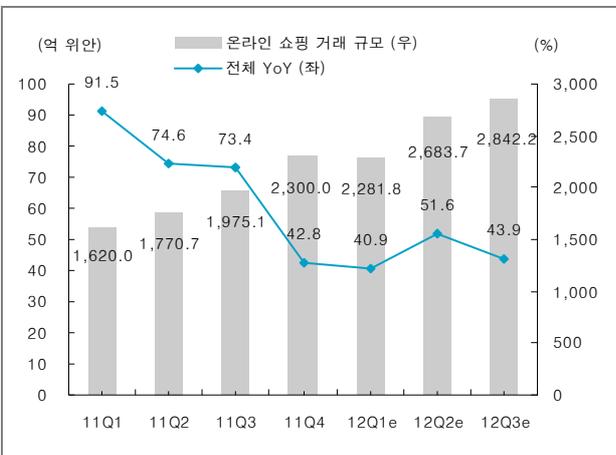
자료: EnfoDesk, 한국투자증권

11월 11일 이루어지는 중국의 대대적인 온라인 쇼핑물 할인행사의 역사는 매우 짧다. 알리바바 그룹의 텐마오(당시 타오바오몰) 쇼핑몰이 2009년 11월 11일 처음 시작한 것으로 원래 텐마오 쇼핑몰만의 관측행사로 시작한 것이었다. 그러나 11월 11일은 시기상 국경절 황금연휴(10월 초)와 크리스마스 시즌 중간에 끼였었기 때문에 작지 않은 모험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이제는 이들 시즌과는 차별화되는 또 다른 쇼핑시즌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고 특히 온라인 쇼핑 시즌의 대명사가 되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프라인 소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쌍십일이 반영하는 중국 소비 환경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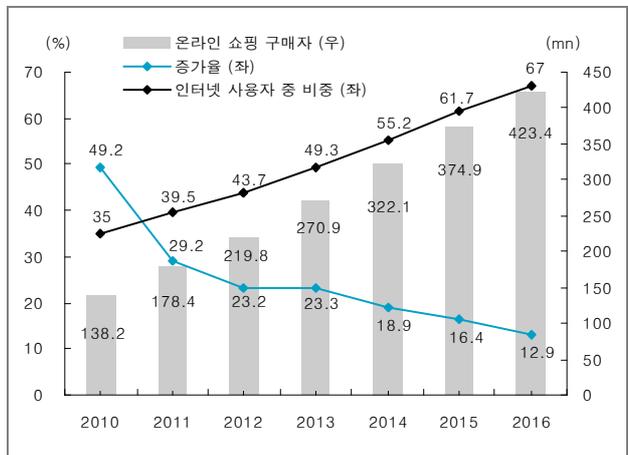
하지만, 중국판 사이버먼데이의 폭발적인 성장이 단순히 중국 소비의 다소(多少)만을 반영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판단한다. 리서치 기관인 iResearch에 따르면, 2012년 3분기 중국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는 2,842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며, 이는 전년 동기대비 약 44% 성장한 것이다.

[그림 5] 중국 온라인 쇼핑 거래 규모 성장세



자료: iResearch, 한국투자증권

[그림 6] 중국의 온라인 쇼핑 구매자 추이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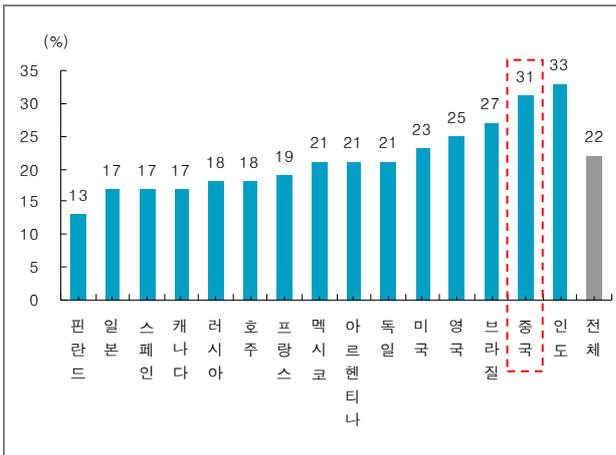


자료: eMarketer, 한국투자증권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잠재력은 그것을 사용하는 사용자 기반의 성장성, 그리고 구매 패턴의 특징으로 접근해볼 수 있다. 2012년의 경우 전체 인터넷 사용자중 약 43.7%가 온라인 쇼핑을 하고 있으나, 2016년에 이르면 약 67%, 즉 4.2억명에 달하는 네티즌이 온라인 쇼핑을 할 것으로 eMarketer는 추정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인터넷 선진국들의 인터넷 보급률이 70~100%인데 반해, 중국은 2012년 6월 기준으로 4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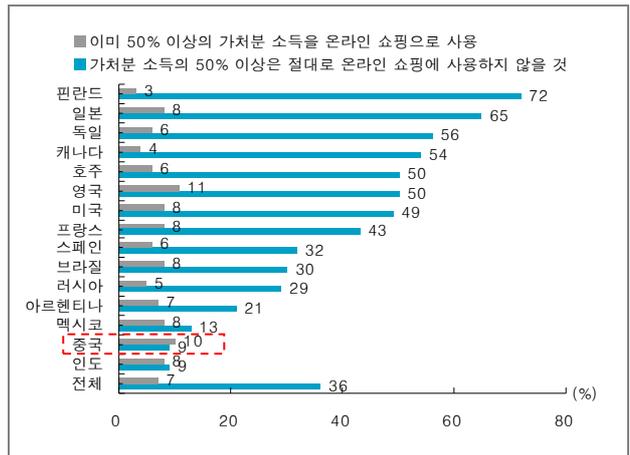
한편 2012년 상반기에 실시한 한 조사에 따르면, 중국 네티즌의 인터넷 쇼핑 패턴은 여타 국가와는 차별화된 특징이 드러난다. [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인들은 가처분소득 대비 인터넷 쇼핑에 많은 돈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비중은 31%에 달해 33%인 인도와 함께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소득자체가 높지 않다는 것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그림 8] 나타난 것 처럼 향후 지출 계획에 있어서도 중국 네티즌은 온라인 쇼핑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경향이 드러난다.

[그림 7] 주요국 가처분 소득 대비 인터넷 쇼핑 비중



자료: WorldPay, 한국투자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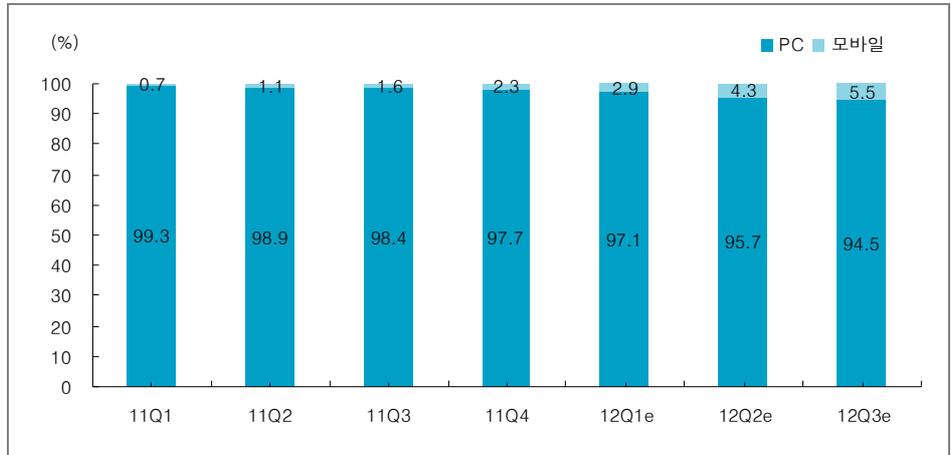
[그림 8] 중국 소비자는 온라인 쇼핑에 적극적인 편



자료: WorldPay, 한국투자증권

다만 아직까지 중국 온라인 쇼핑의 절대다수가 PC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3분기 기준 인터넷 쇼핑 시 모바일 기기의 비중은 5.5%에 그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더불어 인터넷 접속 조건 개선을 통해 모바일 기기를 통한 인터넷 쇼핑은 PC를 빠른 속도로 대체할 것 전망이다. 실제로, 중국 인터넷 정보 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12년 6월 처음으로 핸드폰을 통한 인터넷 접속 비중이 데스크탑을 통한 접속 비중으로 처음으로 넘어서면서 중국 네티즌들의 모바일리티를 기반으로 한 인터넷 쇼핑이 더욱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림 9] 인터넷 쇼핑에 사용하는 단말기 비중



자료: iResearch, 한국투자증권

■ 인터넷 쇼핑, 확장적 시각으로 보자

이러한 변화에 적응해야하는 국내 기업에는 어떤 시사점이 있을까. 2011년 말 기준 중국 인터넷 쇼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품목은 의류, 일용잡화, 충전카드/게임포인트 카드 등 순서로 집계됐다. 이러한 구매 패턴을 고려하면 온라인 쇼핑의 확산이 기존의 대표적 중국 내수 수혜주인 베이직하우스, 오리온, 락앤락 등 업종의 매출 증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제 매년 11월 11일 온라인 판매 실적이 중국 내수 성장 수혜주들의 투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내수 주도형 경제를 지향하는 중국 경제와 관련해 챙겨봐야할 또 하나의 지표가 생긴 것이다.

[그림 10] 인터넷 쇼핑 상위 품목



자료: 중국 인터넷 정보 센터, 한국투자증권

그러나 인터넷 쇼핑 또는 넓은 의미에서 인터넷 상거래의 확산은 단순히 구매 채널의 변화나 소매 매출 촉진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하면, 소비자의 상품 탐색 방식의 변화가 생기고, 기업이 고객에게 접근하는 방식 역시 큰 변화가 생기고, 새로운 사업의 기회도 제공한다.

중국의 인터넷 상거래에 우호적인 환경이 꾸준히 조성된다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한다. ▲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일선 도시의 네티즌들은 ‘스마트 소비’의 기회가, ▲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농촌 지역 주민에게는 ‘최저가격 탐색’의 중요한 도구가, ▲ 1~2선 도시 후방지역(농촌)을 공략하려는 기업들에게는 효과적인 대체 접근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결국 소위 중국 내수주라고 불리는 종목들의 성패는, 온라인 상거래의 플랫폼의 진출 전략(Place), 타겟 고객군에 맞는 제품(Product), 더욱 민감해지는 가격(Price), 인터넷 기반의 마케팅(Promotion) 등 소위 4P로 불리는 마케팅 믹스의 성공적인 재정의 여부에 달려있다.

약재 크지 않다 - 크레딧 강세 이어질 것

■ 2013년 기준금리는 2.0%까지 인하될 것

2013년은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과 미국, 일본, 유로존의 경쟁적인 양적완화에 대한 정책당국의 대응 및 가계부채 문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저금리기조 유지의 필요성이 높은 상황으로 예상된다. 당사는 2013년 1분기부터 분기별 25bp씩 3차례의 금리인하를 통해 기준금리가 2.0%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2013년 크레딧 스프레드는 축소 추세 예상

추세적 기준금리 인하로 채권시장은 강세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며, 크레딧 스프레드도 축소추세를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전반적 기업실적은 부진한 수준이겠지만 추세적 관점에서는 개선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은 크레딧채권의 매수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한다.

■ 섹터별로 회사채와 여전채는 상대적 강세. 공사채 및 은행채는 상대적 약세 예상

섹터별로는 회사채, 여전채는 상대적 강세, 공사채, 은행채는 상대적 약세를 예상한다. 회사채 내에서는 AA등급 이상과 A등급 이하 회사채간의 양극화 현상이 1분기까지는 이어지다가 2분기 이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된다. 여전채 내에서도 카드채와 캐피탈채 스프레드는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카드채는 상대적 강세기조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캐피탈채는 상반기까지는 상대적 강세를 보이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상대적 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2013년 크레딧 이슈 : 제2의 웅진 출현 가능성, 가계부채문제

2013년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는 크레딧 이슈는 제 2의 웅진 출현 가능성, 가계부채 문제 등을 들 수 있으며, 업종별 기업 실적 추세, 신평사의 등급부여추이 등도 크레딧 채권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로 판단된다. 단 제2의 웅진 출현 가능성과 가계부채 문제 등은 AA등급 이상 우량 크레딧 채권의 스프레드 추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한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1월 1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부동산 규제 지속, 중화권 증시 큰 폭 하락

- ▶ 중국 인민은행, 10월 M2 증가율 14.1% (컨센서스 14.5%, 9월 14.8%)
- ▶ 중국 주택건설부, 부동산규제정책 지속 방침
- ▶ 중국 주택건설부, 내년 보장형주택 건설 목표 600만호로 예상

상해증시 큰 폭 반락
부동산, 증권, 항공, 제지 등
업종 급락

■ 중국 시장

상해종합지수가 하루 만에 1% 이상 반락해 9월말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거래금액은 446억 위안으로 직전일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18차 당 대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단기적으로 강도 높은 부양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낮아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건설부 측이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 방침을 밝히면서 매도압력이 확대됐다. 또한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최저치까지 하락해 수출업체들의 부담도 부각됐다. 대다수 업종이 큰 폭으로 하락했고 부동산(-3.6%), 증권/보험(-2.8%), 항공(-2.8%), 제지(-2.6%), IT하드웨어(-2.5%), 기계(-2.5%), 석탄(-2.5%), 가전(-2.4%), 자동차(-2.1%), 시멘트(-2.1%), 화학(-2.1%), 통신장비(-2.0%), 석유/천연가스(-2.0%), 전력(-1.9%), 비철금속(-1.9%), 방직/의류(-1.8%), 음식료(-1.7%), 철강(-1.6%), 은행(-1.5%) 등의 낙폭이 컸다.

■ 홍콩 시장

홍콩H지수 2% 넘게 하락
전 업종 약세. 철도건설,
통신장비 등 급락

홍콩H지수는 2% 넘게 하락해 나흘 연속 약세로 마감했다. 중국 주택건설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하면서 18차 당 대회 부동산정책 완화에 대한 기대가 무산됐다. 또한 달러당 위안화 환율이 10일 연속 일일 최대 변동폭까지 하락하면서 수출에 대한 우려가 가중됐다. 그 외 미국 재정절벽과 그리스 구제금융 결정 지연에 따른 부담도 지속됐고 인민재산보험(2328 HK)의 모회사인 인보그룹의 IPO로 수급 우려도 부각됐다. 모든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철도건설, 통신장비, 시멘트업종이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특히 중국중철은 신규수주 호재에도 불구하고 6.4% 급락했다. 정유, 자동차, 음식료 등의 약세도 지속됐다. 최근 하락폭이 컸던 금속, 광업주의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 주요 이머징마켓 주가지수 추이

(단위: p, %)

구분	11/13(화)	전일 대비(%)	5거래일 전 대비(%)	1개월 전 대비(%)	연초 대비(%)
중국 상해종합	2,047.89	-1.51	-2.76	-1.01	-6.89
홍콩 H	10,230.07	-2.04	-4.70	-3.33	2.95
인도 SENSEX	18,670.34	-0.07	-0.49	0.89	20.81
러시아 RTS	1,385.68	-1.32	-4.37	-3.37	0.28
브라질 보베스파	57,064.31	-0.51	-1.97	-0.01	0.55
베트남 VN	385.22	-0.87	2.19	-0.82	9.58
MSCI 이머징마켓	989.27	-0.17	-1.69	-0.61	7.95

주: 13일 오후 5시 50분 기준

전일 시장 동향과 특징주

대외 불안요인이 지속되며 코스피 1,890P선 이탈, 코스닥은 11거래일 만에 약세 전환

- 재정절벽 논의를 앞두고 합의 기대감과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지급이 연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교차하며 미국증시가 약보합세로 마감한 가운데 코스피는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소폭 상승세로 출발. 그러나 이내 약세로 반전되었고, 낙폭이 확대되며 장중 1,881P까지 하락했으나, 연기금과 개인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됨에 따라, 하락폭을 소폭 만회하며 마감. 유로존 재무장관회의에서 그리스 구제금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악재로 작용하며 투자심리를 위축시킨 모습. 10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코스닥은 외국인의 차익실현 매도세가 집중되며 11거래일만에 약세로 전환
- 종목별 움직임을 살펴보면, 일본 NTT도코모와 KDDI에서 옵티머스G가 판매 호조를 보임에 따라 스마트폰 경쟁력 회복 기대감에 LG전자가 강세를 보인 가운데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전망되는 실리콘웍스의 강세가 돋보임. VGX인터는 개발 중인 B형 감염 치료용 DNA백신이 동물실험 결과 효능이 확인됐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으며, 때이른 추위와 세일 행사 등으로 11월 백화점 매출이 상승 반전한 가운데 내년도 실적 개선 전망이 더해지며 백화점 관련 종목들의 강세가 두드러짐. 한편, 내년도 수익성 악화 전망에 조선업종이 하락세를 보였으며, 3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한 외환은행, 오리콤, 모나미 등은 큰 폭으로 하락

종목/테마	내 용
LG전자(066570) ▶78,400(+2.62%)	스마트폰 경쟁력 회복 기대감에 강세 - 옵티머스 G 판매가 호조세를 나타내며 스마트폰 경쟁력이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2013년 핸드셋 부문의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 아울러,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블랙프라이데이 세일기간으로 동사의 가전 제품 판매 확대가 기대되고 있음
실리콘웍스(108320) ▶28,750(+6.68%)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 애플의 뉴아이패드 및 맥북프로의 출하량 증가에 따른 3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에 견조한 오름세 - 4분기 역시 LG전자 TV용 디스플레이 구동칩 시장 진출로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주가는 내년 주가수익비를 7.2배에 불과해 저가 매력 부각
VGX인터(011000) ▶1,700(상한가)	B형감염 DNA백신 동물실험 성공 소식에 상한가 - 이노비오 공동연구팀과 공동 개발 중인 만성 B형 간염 치료용 DNA백신의 동물실험에서 효능을 확인했다는 소식에 상한가 - DNA백신을 투여 받은 동물의 간에서 강력한 살상 T세포가 유도돼 감염된 간세포를 살상하는 효능 확인
백화점	2013년도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 백화점들의 11월 매출이 상승 반전한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내년도 소비 회복 전망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 현대백화점(069960, +6.64%), 광주신세계(037710, +4.22%), 신세계(004170, +3.21%), 롯데미도파(004010, +2.85%), 그랜드백화점(019010, +2.59%)등 강세

참고: 상기 종목들은 전일 시장에서 특징적인 흐름을 보인 종목들로, 추천 종목과는 별개이니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유망종목: 엠케이전자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종 목 (코 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투자 포인트
엠케이전자 (033160)	4,380 (+4.7)	4,185 (1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본딩와이어 시장은 비용부담이 큰 골드(Gold)본딩와이어의 대체품으로 구리를 사용한 본딩와이어(PCC; Pd Coated Copper Wire)가 개발돼 시장 구조의 변화가 진행 중임, 당사는 글로벌 구리본딩와이어 시장에서 일본 NMC사에 이어 M/S 2위 기록 중 - 현재 구리본딩와이어는 대만 패키지 업체들로 주로 공급되고 있으나, 향후 국내 칩메이커들로도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PCC의 매출 확대에 의해 2%대에 불과하던 영업이익률은 점진적인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로엔 (016170)	14,700 (+1.7)	14,450 (11/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음원가격 상승으로 멜론 서비스의 가입자당 매출액(ARPU) 증가와 함께 SKT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인한 가입자 증가에 따른 성장성 부각 가능성 - 저작권 보호, 콘텐츠 수요 확대 등 우호적인 산업, 보유 아티스트 라인업 확대, 수직 계열화된 사업부문의 경쟁력, 경쟁업체 대비 저평가 매력 등을 주목할 필요
CJ E&M (130960)	29,500 (+3.3)	28,550 (1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바일 기기 확산과 유통채널 다양화로 인해, 고성장이 예상되는 콘텐츠 산업의 거의 모든 분야(게임, 영화, 방송, 음악 및 공연 등)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안정적인 성장동력을 내재 - 3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다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되나, 신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 출시, 방송 부문의 프로그램 경쟁력, 다수의 영화 라인업, 비용 통제 등을 감안할 때 4분기 실적 개선 기대 유효
골프존 (121440)	52,600 (-6.1)	56,000 (1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크린골프 라운딩수 증가와 유료라운딩을 상승으로 네트워크 매출 호조, 신제품 골프시뮬레이터 비전의 양호한 매출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 또한 골프존 아카데미, 골프존 마켓 등 기존 신규 사업 외에 무료 필드 부킹과 디지털 캐디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추가 수익원 발굴 노력을 주목할 필요
농심 (004370)	259,000 (-5.5)	274,000 (1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물 라면의 퇴조, 적극적 신제품 출시 효과, 시장경쟁 완화, 경쟁사의 가격 인상 등으로 인해 3분기 라면시장 점유율은 66.1%(2분기 63.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 영업이익 개선 모멘텀 재개 예상 - 프리미엄 라면을 중심으로 한 라면시장의 성장 가능성, 고가품 비중 확대, 이익 가시성 강화, 규제 리스크 완화 등을 감안할 때 추가 상승 여력 상존
녹십자 (006280)	158,000 (+1.9)	155,000 (9/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기반 하에 바이오 의약품, 해외시장 개척 등으로 성장 모색 - IVIG(면역결핍치료제) 및 그린진-F(유전자 재조합 혈우병 치료제)의 미국 임상3상 진입, 태국 혈액제제 플랜트 수출, GC China(홀딩스 자회사)을 통한 직수출 확대 등 성장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 지속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제시된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골프존 발행주식의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한 대표 주관업무를 수행한 증권사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중장기 유망종목: 삼영이엔씨 외 5개 종목

- 신규: 없음

- 제외: 없음

(단위: 원, %, 십억 원, 배)

편입종목 (코드)	현재가 (수익률)	편입가 (편입일자)	2012년 추정실적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EPS	PER
삼영이엔씨 (065570)	7,150 (-1.2)	7,240 (11/07)	46	11	9	1,023	7.0
- 방산부문의 안정적인 수요, 선박안전 관련 규제 강화(Solas협약, 어선법), 일본 및 중국으로의 수출 확대 등으로 안정적인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예상 -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세, 2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 안정적인 재무구조, 우호적인 시장 환경 등을 감안할 때 리레이팅 가능성 상존							
삼성전자 (005930)	1,349,000 (+3.8)	1,299,000 (10/30)	203,704	28,800	22,831	151,499	8.9
- 갤럭시S3의 판매 호조에 따른 스마트폰 판매 증가 및 이익률 상승으로 안정적인 실적 흐름 지속 - 최근 갤럭시노트10.1의 호평에 힘입어 태블릿의 경쟁력 부각 - 휴대폰 부문의 캐시카우 역할이 지속되는 가운데 반도체 실적 개선 본격화로 2013년에도 실적 개선 모멘텀 지속 전망							
NHN (035420)	251,000 (-3.5)	260,000 (10/23)	2,377	633	503	11,428	22.0
-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높은 검색 점유율 유지 - 모바일 인스턴트 메신저인 '라인(LINE)'의 일본 등 해외시장에서 폭발적인 인기로 중장기 성장원 확보 - 워닝일레븐 온라인 등 신규 대작 게임들의 출시로 웹보드게임 부진을 만회할 전망							
KCC (002380)	298,500 (+7.0)	279,000 (9/27)	3,434	225	696	70,906	4.2
- 금년 하반기부터 주택 입주량이 3년 만에 증가세로 반전함에 따라 이익의 Down-side Risk 완화. 전략적 지분 매입을 통한 Captive market(올해 1월에는 에버랜드 주식 매입)을 확보하고 있어 경쟁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이익 안정성 확보 - 전방산업의 업황 바닥 통과 가능성, 수직 계열화를 통한 시장 지배력 강화, 이익 안정성 등을 감안할 때 밸류에이션 매력 부각 가능성 상존							
씨유메디칼 (115480)	15,000 (+2.0)	14,700 (9/20)	28	8	7	1,164	12.9
- 독일, 일본 등 선진시장에 해외법인을 신설해 AED(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일반인용 심장충격기) 수출 교두보를 확보한 상태로 향후 수출 본격화 예상 - AED 구비 의무화 대상 확대, 대기업과의 제휴를 통한 영업망 확대, 재활치료기 보급 확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장기 성장 잠재력 재부각 가능성 상존							
LG화학 (051910)	302,000 (-7.4)	326,000 (9/17)	24,006	2,177	1,627	22,136	13.6
- 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다각화된 사업구조와 높은 고부가가치 제품 비중으로 안정적인 이익 구조가 유지되고 있으며 LCD용 유리기관, 2차전지 등 장기 성장성을 주목할 필요 - 석유화학 제품의 스프레드 개선, 정보전자소재 및 전지 제품의 판매량 증가 등으로 3분기에는 실적 개선 기대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상기 유망종목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현재 삼성전자, LG화학, NHN의 발행주식을 기초자산으로 ELW(주식워런트증권)를 발행 중이며, 당해 ELW에 대한 유동성 공급자(LP)입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조사분석 담당자와 배우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와 관련해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백화점: 추운 겨울, 늘어나는 매출

■ 11월 현재 백화점 매출 늘어나는 중

11월 매출이 상승 반전된 것으로 파악된다. 전일 뉴스에서는 11월 2일부터 11일까지의 행사기간 중 매출이 전년 행사기간 중 매출 대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도(롯데백화점 전점 +26%/기존점 +17%, 현대백화점 전점 +13%/기존점 +8%, 신세계백화점 전점 +16%/기존점 +11%)되었다. 상승을 이끈 주요 품목은 여성/남성 의류(코트, 패딩 등)와 패션잡화(겨울 부츠, 머플러, 장갑, 레깅스 등), 아웃도어 및 스포츠상품 등이었다. 보도된 수치는 관리매출 기준의 증가율로서 우리가 기준으로 삼는 공표매출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 백화점 4분기 기존점신장을 상승, 고객 traffic은 3월 이후 증가 추세

매출 증가의 주요 요인은 추운 날씨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성장을 이끈 주요 품목은 모두 방한과 관련된 상품들이다. 돌이켜보면 지난해 겨울은 유난히 따뜻했으며(서울지역 겨울 월평균 기온 2010년 -0.2도 vs 2011년 +1.3도), 올해는 추위가 일찍 찾아왔다(서울지역 11월 1일~11일까지의 일평균 온도 2011년 15.7도 vs 2012년 8.8도). 소비 심리 개선은 아직 없지만, 추운 날씨와 지난해 낮은 base, 백화점 고객 traffic 추세를 감안할 때 4분기 백화점 3사의 기존점매출은 지난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 4분기 영업이익 상승 반전 전망

매출 증가가 계속될 경우 4분기 백화점 영업이익은 지난 3분기까지의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상승 반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이 양호할 경우 기존점의 이익 증가 외 신규점의 빠른 손익개선도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최근 매출 증가를 이끄는 의류, 패션잡화, 아웃도어 및 스포츠는 모두 고마진 상품군에 속하기 때문이다. 백화점 3사 중 현대백화점에 특히 주목한다. 백화점 매출 증감에 따른 영업손익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며, 따라서 기존점매출신장과 주가상승률 간의 상관관계도 가장 높다.

■ 현대백화점 Top Pick, 롯데쇼핑과 신세계 매수

백화점 3사의 2013F PER은 시장 대비 할인되어 있다. 입점수수료 인하 규제와 소비위축이 겹치면서 영업이익 하락 폭이 갈수록 커졌기 때문이다. 3분기까지 영업에 불리한 환경은 백화점 3사 모두 동일했지만, 규모의 경제 및 비용 통제 능력, 고마진 상품 구성비에 따라 실적은 각기 다르게 나타났으며, 그 중 현대백화점의 수익성이 가장 돋보인다. 리뉴얼로 인한 영업면적 감소와 비용 증가와 신규점 비용 증가 등의 불리한 요건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감소율은 한 자리 수에 그쳤다. 더군다나 신규점인 충청점의 손익은 9월부터 흑자 전환된 것으로 파악되며, 주력점포인 무역센터점의 리뉴얼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고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매출증가에 기여할 전망이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1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자동차: 판매대수 증가 둔화에 대한 과도한 우려

■ 판매대수 증가 둔화에 대한 과도한 우려

잇따른 악재로 주가 조정이 길어지고 있다. 특히 판매대수 증가 둔화에 대한 우려가 주가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다. 그러나 견고한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1) 현대차의 생산능력 부족에 대한 문제가 최근 중국 3공장과 브라질공장의 생산 개시와 알라바마공장의 3교대 도입으로 해소됐고, 2) 기아차의 13년 생산능력 제한은 신모델 출시로 해결될 전망이다. 현대의 9월 중국공장 판매(84,188대(+14.9% YoY)), 10월 미국공장 판매(37,205대(+24.6% YoY))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9월 상업생산을 시작한 브라질공장 판매는 9월 1,215대에서 10월 7,116대로 급증했다. 기아는 연평균 3~4개의 모델을 출시하는데, 13년에는 6~7개 모델(신형: K3, Soul, Carens & facelift: K7, K5, Sorento, Sportage)을 출시할 예정이다. 미국시장에는 신차 4개(1월 K3, 3월 K7, 3분기 신형 Soul, 4분기 신형 Carens)와 3개의 facelift 모델(1월 Sorento, 4분기 K5, Sportage)을 출시할 예정이다.

■ Top picks: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연비 과장에 대한 보상으로 현대와 기아는 총 6,393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양사가 판매보증충당금 2천억원을 활용한다는 가정 하에 현대와 기아의 12년 세전이익을 1.8%, 3.9% 하락한다. 이로써 현대와 기아의 4분기 영업이익률은 기존의 10.5%, 9.1%에서 각각 9.6%, 7.3%(vs. 전년동기 10.4%, 7.5%)로 하락할 전망이다. 한편 브라질공장의 빠른 정상화와 13일 facelift K7 출시를 주목할 만하다. 이에 기아차(000270, TP 105,000원), 현대차(005380, TP 320,000원)를 top pick으로 유지한다. 넥센타이어(002350, TP 27,000원)의 신공장 효과는 주가에 반영되었으며 최근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에 부각되는 모비스(012330, TP 400,000원)를 top pick으로 대체한다.

■ 10월 현대 사상 최대 판매 기록

현대차는 10월에 412,189대(+13.9% YoY)를 판매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내수판매는 61,486대로 4.4% 증가했다. 해외판매는 해외공장 판매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데 힘입어 15.7% 증가했다(수출 111,005대(-3% YoY), 해외공장 판매 239,698대(+27.1% YoY)). 기아차 역시 사상 최대의 해외공장 판매(110,705대(+24.5% YoY))에 힘입어 9% 증가한 231,438대를 판매했다. 하지만 수출은 광주공장 생산중단으로 2.5% 줄어든 80,133대를 기록했다. 내수 판매는 1.7% 감소했다.

■ 10월 미국판매 전년동월대비 2.9% 증가, 시장 점유율 8.5%

10월 현대와 기아의 미국판매는 허리케인의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2.9% 증가한 92,723대에 그쳤다. 산업수요는 7% 증가한 1,092,294대(vs 시장예상치 113만대)였다. 이로써 양사의 점유율은 전년동월 8.8%에서 8.5%로 하락했다. 현대는 전년동월대비 4.1% 감소한 50,271대, 기아는 12.6% 증가한 42,452대를 판매했다. 현대의 점유율은 5.1%에서 4.6%로 하락했고, 기아의 점유율은 3.7%에서 3.9%로 상승했다.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1월 13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농심(004370)

매수(유지)
목표가: 330,000원(유지)
종가(11/12): 255,000원

저력 보여준 3분기 실적

■ What's new : 3분기 영업이익, 세전이익 전년동기대비 25.4%, 61.5% 증가

3분기 매출액은 전년동기대비 3.9% 증가해 예상과 일치했고, 영업이익은 25.4% 증가해 예상을 10.5%, 컨센서스를 19.0% 상회했다. 수익성이 우수한 라면 매출액이 전년동기대비 10.5% 증가해 예상(+8.8% YoY)보다 호조세를 보여 마진을 개선이 컸다. 라면 매출액은 기존 제품의 가격 인상 및 프리미엄면 비중 확대에 성장했다. 스낵 매출액은 가격 인상으로 인한 판매 저항으로 4.0% 감소, 음료는 삼다수 공급 차질로 9.6% 감소, 수출은 북미지역 신제품 출시 효과로 8.2% 증가했다. 경쟁 완화로 마케팅비 부담은 상반기대비 완화, 전년동기 수준에 그쳐 영업이익률 개선에 일조했다. 원화 강세로 외환관련손익이 전년동기의 65억원 손실에서 29억원 이익으로 전환돼 세전이익은 61.5% 큰 폭으로 증가했다.

■ Positives : 라면 시장점유율 67.4%로 개선

라면 점유율은 2분기에 63.7%에 이어 7, 8, 9월에 각각 65.3%, 67.9%, 69.2%로 계속 개선돼 3분기 평균 67.4%(3Q11 68.1%, 한국증권 기준 예상 67.2%)를 기록했다. 이러한 회복은 경쟁사의 히트 제품인 흰국물라면의 퇴조, 적극적 신제품 출시, 경쟁 완화, 경쟁사의 가격 인상 등에 기인한다. 고가품 비중 확대에 전년동기대비 라면가격 상승률이 2분기 5.1%에서 이번 분기에 7.8%로 확대된 점도 긍정적이다.

■ Negatives : 삼다수 판매 차질로 음료 감소

삼다수 매출액은 9월의 capa 증설 기간 동안의 공급 차질로 전년동기대비 21.4% 급감했다. 하지만 웰치, 카프리션 등 기타 음료 판매가 신제품 출시 및 프로모션으로 성장해 삼다수 공백을 일부 상쇄했다.

■ 결론 : 벤조피렌 사건 불구 여전히 매력적

3분기 실적 호조 불구, 10월말 불거진 벤조피렌 사건에 따른 부정적 여파와 삼다수 판매 중단 영향을 감안해 2012년, 2013년, 2014년 영업이익을 종전대비 각각 9.4%, 6.4%, 3.9% 하향 조정한다. 하지만 SOTP로 산정한 목표주가는 330,000원은 valuation 기간 경과에 따른 가치 상승을 감안해 그대로 유지한다. 동사를 지속적으로 매수 추천하는 이유는 1) 벤조피렌 사건에 따른 판매 감소폭이 예상보다 작고, 2) 2012년, 2013년 예상 PER이 각각 13.2배, 10.5배로 업종 평균인 17.3배, 14.4배대비 낮고, 3) 12월부터 중국 생수제품인 백산수가 삼다수를 대체할 것이며, 4) ASP 상승, 그리고 투자 완료 및 고급 제품 비중 확대에 ROIC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벤조피렌 사건 이후 주간 면류 판매액은 사건 전대비 15% 가량 감소(전년동기대비 16% 증가 수준)해 대규모 언론 노출 및 자극적 이슈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려보다는 양호한 것으로 파악된다. 식품 안정성 이슈의 특성상 판매 감소는 초기에 가장 크고 점차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 모든 악재가 노출된 현 시점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을 것을 권고한다.

	3Q12P				증감률		2012F	
	추정	실적	차이	컨센서스	QoQ	YoY	당사	컨센서스
매출액	498.3	500.7	0.5	494.7	6.7	3.9	2,066.3	2,020.3
영업이익	31.4	34.7	10.5	29.1	85.2	25.4	129.3	114.5
영업이익률(%)	6.3	6.9		5.9			6.3	5.7
세전이익	38.3	41.4	8.1		87.0	61.5		
순이익	28.7	31.2	8.5	26.9	86.7	60.1	4.5	(1.6)

*상기 보고서는 2012년 11월 12일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의 요약본입니다.

◆ 주요 증시 지표

구 분		11/06(화)	11/07(수)	11/08(목)	11/09(금)	11/12(월)	11/13(화)	
유가증권	종합주가지수	1,928.17	1,937.55	1,914.41	1,904.41	1,900.87	1,889.70	
	등락폭	19.95	9.38	-23.14	-10.00	-3.54	-11.17	
	등락종목	상승(상한)	496(4)	410(4)	270(11)	362(4)	391(7)	214(4)
		하락(하한)	335(3)	401(3)	534(1)	446(5)	436(4)	613(5)
	ADR	83.26	87.20	85.84	84.13	86.25	80.88	
	이격도	10 일	101.02	101.39	100.23	99.64	99.41	98.87
		20 일	100.18	100.69	99.54	99.09	98.97	98.52
	투자심리	60	70	60	60	50	40	
	거래량 (백만 주)	540	550	654	629	469	487	
	거래대금 (십억 원)	4,501	4,580	5,304	4,745	3,735	3,859	
코스닥	코스닥지수	517.53	518.45	519.04	519.90	521.43	513.80	
	등락폭	2.39	0.92	0.59	0.86	1.53	-7.63	
	등락종목	상승(상한)	481(10)	459(12)	382(4)	446(6)	452(9)	254(9)
		하락(하한)	440(3)	464(2)	536(4)	469(5)	475(3)	700(2)
	ADR	81.67	84.50	83.45	81.63	85.88	81.91	
	이격도	10 일	101.31	101.61	101.71	101.59	101.36	99.65
		20 일	99.67	99.99	100.26	100.62	100.99	99.68
	투자심리	70	70	80	90	100	90	
	거래량 (백만 주)	459	455	455	406	409	473	
	거래대금 (십억 원)	2,113	1,830	1,778	1,645	1,883	2,034	

◆ 주체별 순매수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개 인	외국인	기관계	(증권)	(보험)	(투신)	(사모)	(은행)	(종기금)	기 타	
유가증권	매수	2,230.2	763.3	842.3	186.8	87.3	204.4	37.5	33.7	195.6	55.5
	매도	2,220.3	769.9	857.1	178.3	95.7	247.8	69.8	29.6	136.4	43.9
	순매수	9.9	-6.6	-14.9	8.4	-8.4	-43.4	-32.3	4.1	59.2	11.5
	11 월 누계	400.1	-121.9	-12.2	215.5	-7.8	-129.6	-24.4	40.5	346.0	-266.0
	12 년 누계	-10,677.0	13,556.0	2,043.2	1,799.3	2,554.6	-5,222.4	-45.7	458.3	2,586.5	-4,922.2
코스닥	매수	1,850.2	67.8	117.1	24.1	15.8	39.5	5.6	4.8	24.7	19.0
	매도	1,832.3	103.5	100.4	22.5	10.9	30.9	7.5	5.1	18.6	17.9
	순매수	18.0	-35.7	16.7	1.6	4.9	8.6	-1.9	-0.2	6.1	1.1
	11 월 누계	-29.4	-99.8	159.7	58.9	7.1	65.7	-14.5	9.7	30.8	-30.5
	12 년 누계	1,063.3	14.6	-333.0	111.3	88.1	-548.7	-209.8	-28.7	252.5	-744.9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PI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철강및금속	14,272	운수장비	-30,710
음식료품	5,893	화학	-17,821
의약품	4,825	전기가스업	-7,224
POSCO	15,999	삼성전자	-9,898
KODEX 200	4,610	한국전력	-8,510
유한양행	4,020	대우조선해양	-8,309
CJ	3,831	현대중공업	-7,852
현대위아	3,671	NHN	-5,808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49,939	운수장비	-15,752
유통업	12,124	운수창고	-4,673
통신업	7,195	금융업	-3,596
삼성전자	26,314	현대차	-8,905
SK하이닉스	9,366	삼성중공업	-6,230
LG전자	7,282	KB금융	-6,141
현대백화점	6,966	LG화학	-4,439
POSCO	6,672	CJ	-3,965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서비스업	2,156	건설업	-2,408
철강및금속	1,983	화학	-1,735
섬유,의복	1,208	전기가스업	-1,051
두산	2,140	GS건설	-2,374
POSCO	2,071	삼성전자	-2,044
LG디스플레이	1,499	메리츠화재	-850
KODEX 200	1,417	한국전력	-732
LG패션	1,070	대우조선해양	-660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유통업	7,879	운수장비	-7,386
통신업	4,171	화학	-6,310
섬유,의복	2,439	전기가스업	-5,069
TIGER 200	7,490	한국전력	-5,431
KINDEX200	4,914	현대중공업	-3,269
KODEX 200	4,082	호남석유	-2,729
롯데쇼핑	4,080	삼성전자	-2,507
LG전자	3,865	대우조선해양	-2,046

◆ KOSPI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44,406	운수장비	-49,209
유통업	25,628	화학	-29,765
철강및금속	17,409	기계	-13,650
KODEX 200	20,804	KODEX 레버리지	-63,941
POSCO	20,244	현대중공업	-16,478
KODEX 인버스	15,899	한국전력	-16,055
LG전자	13,164	LG화학	-14,152
현대백화점	11,214	두산중공업	-9,074
삼성전자	10,637	삼성중공업	-8,562
SK하이닉스	10,291	대우조선해양	-8,260
SK	7,022	호남석유	-7,885
농심	6,906	현대차	-6,863
LG유플러스	6,842	기아차	-6,607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전기,전자	13,734	철강및금속	-18,161
화학	11,294	음식료품	-10,686
기계	7,704	건설업	-8,509
LG전자	14,422	KODEX 200	-24,738
LG화학	13,807	POSCO	-14,774
KT	12,336	GS건설	-10,617
KODEX 레버리지	11,410	SK텔레콤	-6,934
현대해상	9,157	아모레퍼시픽	-6,442
현대모비스	8,484	대우조선해양	-5,942
한국전력	5,857	외환은행	-5,526
두산중공업	4,762	KT&G	-5,359
삼성전기	4,683	삼성화재	-5,008
우리금융	3,620	삼성전자우	-4,811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KOSDAQ 기관별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투 신		투 신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6,058	반도체	-2,970
통신서비스	3,961	인터넷	-1,341
사업지원	1,332	전문기술	-1,033
SK브로드밴드	3,961	덕산하이메탈	-2,268
게임빌	3,465	다음	-1,392
컴투스	1,516	인터파크	-1,144
오스팀임플란트	1,479	동국제약	-686
KH바텍	966	에림당	-682

연 기 금		연 기 금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IT부품	2,211	금속	-1,578
통신서비스	2,020	디지털컨텐츠	-1,070
전문기술	1,294	인터넷	-766
멜파스	2,304	태광	-1,422
SK브로드밴드	2,020	게임빌	-938
인터파크	1,190	서울반도체	-931
에스엠	1,051	다음	-766
네패스	662	인터플렉스	-565

(체결기준: 백만원)

은 행		은 행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428	연구,개발	-469
전문기술	380	반도체	-405
사업지원	270	디지털컨텐츠	-370
서울반도체	498	실리콘웍스	-983
에스엠	428	바이로메드	-435
제이브이엠	391	컴투스	-379
인터파크	335	파라다이스	-313
하나투어	270	메디투스	-181

보 험		보 험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출판,매체복제	1,370	IT부품	-1,049
반도체	1,084	사업지원	-730
금속	1,071	오락,문화	-350
에스엠	1,410	에스맥	-1,232
서울반도체	884	모두투어	-777
멜파스	657	파라다이스	-501
SK브로드밴드	479	이엘케이	-373
하이록코리아	471	에이블씨엔씨	-352

◆ KOSDAQ 기관/외인 당일 매매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기 관		기 관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디지털컨텐츠	6,843	인터넷	-2,487
통신서비스	4,752	금속	-2,134
IT부품	3,395	연구,개발	-857
SK브로드밴드	4,692	덕산하이메탈	-3,225
에스엠	3,584	태광	-3,103
멜파스	3,273	다음	-2,642
컴투스	2,983	파라다이스	-1,737
인터파크	1,992	씨젠	-1,645
하나투어	1,886	인프라웨어	-1,424
오스팀임플란트	1,751	셀트리온	-1,155
게임빌	1,639	플렉스컴	-1,127
제이브이엠	1,343	이엘케이	-764
포스코엠텍	1,232	인터플렉스	-737

외 국 인		외 국 인	
순 매 수	순 매 도	순 매 수	순 매 도
인터넷	3,538	제약	-7,417
출판,매체복제	1,630	소프트웨어	-6,663
미분류	420	디지털컨텐츠	-6,607
다음	3,792	한국사이버결제	-3,843
에스엠	1,843	게임빌	-3,302
파트론	1,588	셀트리온	-3,255
서울반도체	1,056	메디투스	-2,614
솔브레인	676	하나투어	-2,279
플렉스컴	564	태광	-1,861
마크로젠	451	오스팀임플란트	-1,856
씨티씨바이오	431	파라다이스	-1,634
미래나노텍	423	동서	-1,602
오픈베이스	373	KG이니시스	-719

주: 외국인은 외국인투자등록이 되어있는 투자자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수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기	관	외	국 인
LG디스플레이	26 일	한라공조	11 일
LG전자	26 일	CJ제일제당	7 일
빙그레	23 일	대한항공	6 일
효성	20 일	현대차	6 일
웅진코웨이	17 일	두산인프라코어	6 일
오리온	13 일	현대건설	5 일
GS	13 일	한화	5 일
TIGER 국제3	11 일	삼영전자	5 일

KOSDAQ			
기	관	외	국 인
이엘케이	13 일	휴맥스	11 일
이트레이드증권	9 일	이트레이드증권	10 일
메가스터디	7 일	아트라스BX	8 일
비에이치아이	7 일	파트론	6 일
하나투어	6 일	한국토지신탁	4 일
포스코켄텍	5 일	이오테크닉스	4 일
서부T&D	5 일	씨앤케이인터	4 일
아트라스BX	5 일	게임하이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수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기	관	외	국 인
KODEX 200	99,936	현대차	204,006
SK	66,968	기아차	32,210
삼성전자	60,329	현대건설	25,914
LG전자	49,145	호텔신라	21,722
KODEX 인버스	42,796	현대해상	16,805
SK텔레콤	40,767	CJ제일제당	14,482
NHN	38,892	삼성전기	14,150
GS	33,578	한진해운	10,909

KOSDAQ			
기	관	외	국 인
멜파스	19,271	파트론	6,456
컴투스	16,803	다음	4,882
SK브로드밴드	13,879	플렉스컴	4,433
인터플렉스	12,163	휴맥스	2,204
하나투어	9,248	에스엠	1,888
에스엠	4,519	미래나노텍	1,708
CJ오쇼핑	4,262	평화정공	1,624
코오롱생명과학	4,199	인터플렉스	1,539

◆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전기,전자		44,406	13,734 58,140
유통업		25,628	3,503 29,131
통신업		9,582	3,772 13,353
LG전자		13,164	14,422 27,586
현대백화점		11,214	343 11,557
삼성SDI		4,020	1,383 5,403
삼성전기		688	4,683 5,371
휠라코리아		4,126	391 4,517
신세계		2,384	1,874 4,258
우리금융		469	3,620 4,089
LG패션		3,615	363 3,979
LG디스플레이		2,091	1,124 3,215
효성		700	2,043 2,743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출판,매체복제		2,948	1,630 4,578
교육		543	220 763
정보기기		337	18 355
에스엠		3,584	1,843 5,427
파트론		137	1,588 1,724
서울반도체		344	1,056 1,400
한글과컴퓨터		978	274 1,252
하이록코리아		1,033	144 1,177
CJ E&M		650	322 972
바이오랜드		669	205 873
모베이스		625	8 633
CJ오쇼핑		237	362 599
C&S자산관리		494	56 550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기관/외인 연속 순매도 상위 종목

(단위: 일)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한진해운홀딩스	23 일	NHN	34 일	동국산업	13 일	덕산하이메탈	14 일
한일이화	22 일	하나금융지주	18 일	네패스	8 일	하나투어	8 일
두산중공업	22 일	SK텔레콤	17 일	태광	5 일	에스엔유	6 일
동양기전	19 일	유한양행	14 일	성광벤드	3 일	주성엔지니어링	5 일
한라공조	16 일	경방	13 일	셀트리온	3 일	KCC건설	4 일
삼성카드	12 일	조선내화	13 일	메디포스트	3 일	동양시멘트	4 일
에스엘	10 일	LS	10 일	성우하이텍	2 일	오성엘에스티	4 일
현대중공업	9 일	웅진코웨이	10 일	포스코 ICT	2 일	동국S&C	4 일

◆ 기관/외인 5일간 누적 순매도 상위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기 관		외 국 인		기 관		외 국 인	
KODEX 레버리지	-178,998	KODEX 200	-110,768	네패스	-11,619	셀트리온	-28,673
현대차	-109,738	NHN	-78,280	태광	-11,202	게임빌	-7,329
엔씨소프트	-80,372	SK텔레콤	-62,548	성광벤드	-7,687	메디톡스	-6,541
GS건설	-74,875	GS건설	-58,544	파워로직스	-6,027	하나투어	-5,562
현대중공업	-60,652	엔씨소프트	-39,565	다음	-5,948	파라다이스	-5,216
기아차	-53,557	하나금융지주	-36,572	덕산하이메탈	-5,820	한국사이버결제	-3,678
현대건설	-43,543	SK하이닉스	-31,212	심텍	-5,735	덕산하이메탈	-3,674
삼성물산	-42,347	LG	-24,537	플랜티넷	-2,610	컴투스	-3,662

◆ 기관/외인 동반 순매도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백만원)

KOSPI				KOSDAQ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종 목	기 관	외 국 인	합 계
건설업	-4,976	-8,509	-13,485	계약	-444	-7,417	-7,861
금융업	-10,091	-435	-10,526	소프트웨어	-336	-6,663	-6,999
은행	-1,174	-4,612	-5,786	금속	-2,134	-2,656	-4,790
GS건설	-3,942	-10,617	-14,559	태광	-3,103	-1,861	-4,963
대우조선해양	-8,260	-5,942	-14,202	셀트리온	-1,155	-3,255	-4,410
NHN	-5,081	-4,702	-9,782	덕산하이메탈	-3,225	-328	-3,553
기아차	-6,607	-1,108	-7,715	파라다이스	-1,737	-1,634	-3,371
삼성카드	-6,400	-970	-7,370	인프라웨어	-1,424	-634	-2,058
엔씨소프트	-3,059	-2,858	-5,917	동서	-396	-1,602	-1,997
아시아나항공	-4,922	-140	-5,062	씨젠	-1,645	-130	-1,775
S-Oil	-993	-3,690	-4,683	바이로메드	-555	-381	-936
고려아연	-2,663	-1,694	-4,356	모두투어	-691	-238	-929
신한지주	-814	-2,425	-3,239	이엘케이	-764	-124	-888

주: 기관/외인 동반 순매수 종목 가운데 기관/외인 합계 순매수 금액이 큰 순서대로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POSCO	30	9,588
현대차	38	8,260
SK하이닉스	284	7,161
GS	87	6,356
삼성전자	4	5,271
NHN	17	4,330
LG디스플레이	113	3,972
호남석유	16	3,494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게임빌	10	1,305
셀트리온	26	681
에스에프에이	13	528
다음	6	522
플렉스컴	27	482
KG이니시스	30	392
성광밴드	14	354
인터플렉스	5	349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상위 종목

(체결기준: 천주, 백만원)

KOSPI		
종 목	주 수	금 액
삼성전자	4,414	5,936,218
LG전자	42,692	3,261,661
POSCO	9,674	3,124,556
OCI	9,820	1,507,432
현대차	6,496	1,406,423
NHN	3,665	941,951
SK하이닉스	32,175	814,019
현대모비스	2,695	731,619

KOSDAQ		
종 목	주 수	금 액
셀트리온	28,246	741,461
서울반도체	5,946	127,836
에스엠	1,545	103,657
게임빌	432	56,095
덕산하이메탈	2,784	51,914
위메이드	939	49,600
인터플렉스	626	43,978
에이블씨엔씨	453	42,095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 대차잔고 5일간 누적 순증/감 상위 업종 및 종목

(체결기준: 천주)

KOSPI			
순 증		순 감	
운수창고	930	운수장비	-3,986
의약품	208	전기,전자	-2,919
통신업	96	서비스업	-2,246
우리금융	1,130	두산인프라코어	-1,588
한진해운	724	대우조선해양	-1,321
SK네트웍스	455	LG디스플레이	-1,309
동국제강	379	STX조선해양	-1,205
제일기획	349	대한전선	-1,187
TIGER 200	347	웅진홀딩스	-1,034
한화케미칼	320	KODEX 200	-643
종근당	271	한화생명	-619
두산	268	무림P&P	-611
신한지주	253	하나금융지주	-539

KOSDAQ			
순 증		순 감	
전문기술	212	반도체	-1,256
컴퓨터서비스	156	비금속	-484
IT부품	155	운송장비, 부품	-359
인터파크	227	서울반도체	-622
큐로컴	126	유진기업	-489
옵트론텍	111	성우하이텍	-340
디지텍시스템	110	주성엔지니어링	-308
KG이니시스	106	STS반도체	-239
에스텍파마	95	파트론	-200
차바이오텐	74	케이디씨	-199
원익IPS	73	유니슨	-143
나노신소재	73	인프라웨어	-135
루멘스	62	네오위즈게임즈	-123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 기준임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증시 거래 주체별 매매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07(수)	11/08(목)	11/09(금)	11/12(월)	11/13(화)
외국인	13,556.0	-121.9	-417.2	129.8	-118.5	106.1	-156.6	-6.6
기관계	2,043.2	-12.2	-185.2	-33.0	-300.2	23.6	104.8	-14.9
(투신)	-5,222.4	-129.6	-89.3	53.8	-89.5	55.4	-30.5	-43.4
(연기금)	2,683.4	307.6	133.5	10.8	-15.2	31.0	35.1	55.8
(은행)	458.3	40.5	61.0	4.4	22.7	-1.1	8.4	4.1
(보험)	2,554.6	-7.8	-72.5	-17.9	-25.5	31.0	-13.2	-8.4
개인	-10,677.0	400.1	530.0	-106.6	400.7	-134.9	36.9	9.9
기타	-4,922.2	-266.0	72.4	9.8	17.9	5.2	14.9	11.5

주: KOSDAQ 제외

◆ 증시 자금 동향

(단위: p, 십억원, %)

구 분	2009년	2010년	2011년	11/06(화)	11/07(수)	11/08(목)	11/09(금)	11/12(월)
KOSPI	1,682.77	2,051.00	1,825.74	1,928.17	1,937.55	1,914.41	1,904.41	1,900.87
고객예탁금	12072.0	14068.5	17680.2	17309.0	17296.7	17602.6	17312.7	17241.8
(증감액)	2735.7	1996.5	3611.7	-473.8	-12.3	305.9	-289.9	-70.9
(회전율)	52.6	51.5	34.2	38.8	37.8	40.9	37.4	33.0
실질예탁금 증감	-292.5	-3502.6	3775.5	-677.5	18.9	172.9	-362.9	212.7
신용잔고	4359.5	5938.3	4476.3	4434.0	4461.8	4461.6	4459.0	4495.6
미수금	240.2	192.3	187.7	90.1	108.3	95.5	101.2	164.1

주1: 실질예탁금 증감=고객예탁금증분+개인순매수-(신용증분+미수금 증분) / 고객 예탁금 회전율=(KOSPI, KOSDAQ 거래대금/고객예탁금)*100

주2: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KOSCOM

◆ 국내 수익증권 유출입 동향

(단위: 십억원)

구 분	설정 잔액	연간 누계	월간 누계	11/06(화)	11/07(수)	11/08(목)	11/09(금)	11/12(월)
전체 주식형	95,696	-6,887	-7	18	1	-56	37	28
(ex. ETF)		-9,234	-157	19	-41	-60	7	14
국내 주식형	68,733	-3,784	115	33	19	-37	41	43
(ex. ETF)		-6,131	-37	35	-23	-41	8	29
해외 주식형	26,963	-3,104	-123	-15	-18	-19	-4	-15
(ex. ETF)		-3,103	-120	-15	-18	-19	-1	-15
주식 혼합형	10,378	-1,488	-10	11	-6	-4	3	-2
채권 혼합형	19,203	1,176	401	17	-8	198	172	-3
채권형	46,001	1,480	716	50	-39	265	45	19
MMF	74,990	20,416	131	403	360	-962	-818	-1,058

주: 상기 표의 수치는 2거래일 전까지 제공, 금융투자협회

국내외 자금동향 및 대차거래

◆ 주요 이머징마켓 외국인 매매 동향

(단위: 백만달러)

국 가	연간 누계	월간 누계	5일간 누계	11/07(수)	11/08(목)	11/09(금)	11/12(월)	11/13(화)
한 국	12,134	-108	-329	3	119	-110	-144	-2
대 만	1,604	-141	50	59	148	-44	90	-313
인 도	18,632	532	166	43	137	56	-	-
인도네시아	1,722	-297	-24	-54	-71	-34	52	-68
태국	1,551	3	98	-23	-17	-40	-22	-
남아공	-690	579	156	63	134	19	26	-
필리핀	2,033	60	23	19	9	-3	4	8

자료: Bloomberg, 한국투자증권

◆ 주요 금리, 환율 및 원자재 가격

(단위: %, 원, 엔, p, 달러)

구 분	2011년	11/06(화)	11/07(수)	11/08(목)	11/09(금)	11/12(월)	11/13(화)
회사채 (AA-)	4.21	3.30	3.30	3.28	3.31	3.31	3.30
회사채 (BBB-)	10.01	8.69	8.69	8.67	8.70	8.70	8.68
국고채 (3년)	3.34	2.78	2.78	2.76	2.79	2.79	2.78
국고채 (5년)	3.46	2.85	2.85	2.83	2.86	2.86	2.84
국고채 (10년)	3.79	2.99	2.99	2.96	2.98	2.98	2.96
미 국채 (10년)	1.88	1.75	1.69	1.61	1.61	1.61	-
일 국채 (10년)	0.99	0.76	0.76	0.75	0.74	0.74	-
원/달러	1,151.80	1,090.70	1,085.40	1,089.30	1,087.60	1,088.60	1,089.90
원/엔	1,492.00	1,359.13	1,355.56	1,364.00	1,368.00	1,371.00	1,376.00
엔/달러	77.24	80.25	80.07	79.91	79.52	79.44	79.25
달러/유로	1.29	1.28	1.28	1.27	1.27	1.27	1.26
DDR3 1Gb (1333MHz)	0.64	0.64	0.65	0.64	0.64	0.64	-
NAND Flash 16Gb (MLC)	2.81	1.95	1.95	1.94	1.94	1.92	-
CRB 지수	305.30	297.17	291.49	291.87	292.22	292.15	-
LME 지수	3,306.0	3,281.0	3,256.0	3,273.7	3,245.4	3,285.8	-
BDI	1,738	947	916	916	940	965	-
유가 (WTI, 달러/배럴)	98.83	88.71	84.44	84.50	86.05	86.05	-
금 (달러/온스)	1,566.80	1,691.00	1,714.00	1,726.00	1,730.90	1,730.90	-

자료: Bloomberg, KOSCOM, 한국투자증권

KOSPI200 선물 옵션 시장 동향

◆ 선물시장 지표

(단위: P, 계약)

	기초자산 KOSPI200	최근월물 1212월물	베이스스			거래량	미결제약정	
			이론	마감	평균		증감	
11월 7일	253.70	254.05	0.71	0.35	0.55	325,532	101,376	-3,157
11월 8일	250.13	249.45	0.68	-0.68	0.36	252,299	97,319	-4,057
11월 9일	248.69	249.30	0.66	0.61	0.17	194,470	96,334	-985
11월 12일	248.18	249.25	0.60	1.07	0.34	143,117	97,772	1,438
11월 13일	246.90	247.40	0.60	0.50	0.40	183,903	100,181	2,409

◆ 지수선물시장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계약)

	외국인	개인	기관종합					기금
			증권	투신	은행	보험		
11월 7일	-1,664	608	1,506	-267	1,075	-78	-97	0
11월 8일	-5,282	3,843	1,157	1,383	-2,457	-44	427	2
11월 9일	1,699	-1,760	426	74	79	-72	-66	0
11월 12일	1,089	32	-1,103	-547	793	-259	-162	-1
11월 13일	-396	-1,046	1,133	972	622	-169	-311	1
누적포지션	-18,562	4,238	14,077	2,950	8,766	-1,359	-1,133	4,885

◆ 지수선물 프로그램 매매동향

(단위: 십억 원)

	프로그램 전체			비차익거래			차익거래			차익거래잔고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순매수	매도	매수
11월 7일	807	697	-110	627	601	-26	179	96	-84	6,146	9,954
11월 8일	1,211	782	-429	877	665	-213	334	118	-216	6,274	9,862
11월 9일	935	679	-255	726	605	-121	209	74	-134	6,294	9,744
11월 12일	499	555	56	462	446	-16	37	109	71	6,239	9,758
11월 13일	525	567	42	471	519	48	54	48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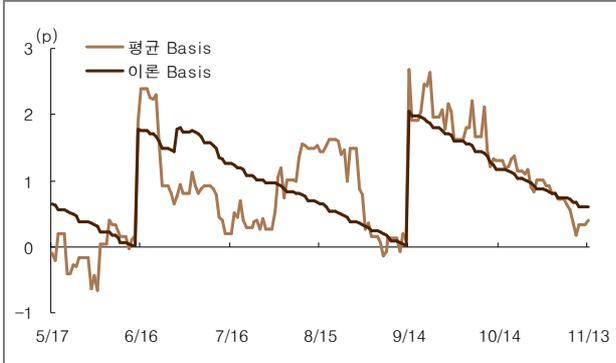
◆ 옵션시장 거래동향

(단위: 변동성(%)/가격(P))

변동성	콜옵션			행사가격	풋옵션			변동성
	미결제증감	거래량	현재가		현재가	거래량	미결제증감	
15.54	3,629	103,467	0.76	260.00	13.70	40	-3	18.11
15.62	2,213	97,050	1.16	257.50	11.00	202	-27	14.75
15.71	861	99,094	1.71	255.00	9.30	479	1	16.05
15.93	257	72,386	2.47	252.50	7.45	1,581	-15	15.79
16.22	1,799	15,873	3.45	250.00	6.00	4,882	-42	16.31
16.16	1,096	11,628	4.55	247.50	4.60	8,498	169	16.24
16.78	635	4,152	6.05	245.00	3.60	16,340	417	16.84
17.24	287	1,332	7.70	242.50	2.70	66,625	387	17.09
17.18	116	486	9.40	240.00	2.02	132,078	1,933	17.50
16.17	4	17	11.10	237.50	1.53	77,446	676	18.11
11.61	0	4	12.65	235.00	1.15	81,650	1,542	18.71

■ 주요 지표

이론 Basis & 평균 Ba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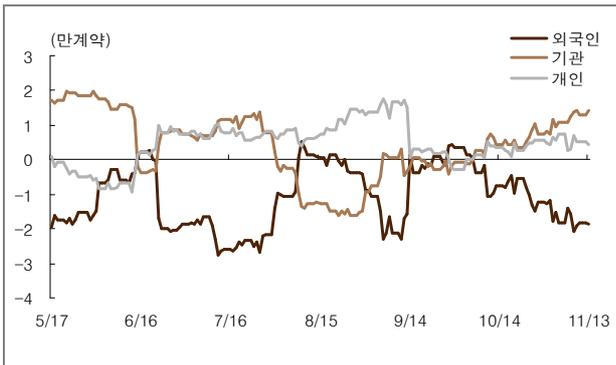
- 평균 Basis: 0.40 (전 거래일 대비 0.06 상승)
- 이론 Basis: 0.60

선물 가격 & 미결제 약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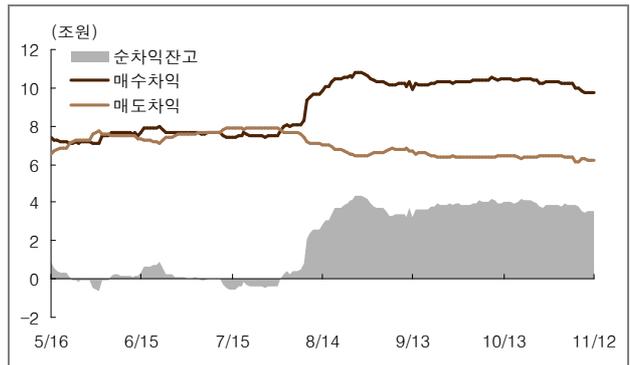
- 미결제약정: 전 거래일 대비 2,409 계약 증가한 100,181 계약
- 선물가격(247.40): 전 거래일 대비 1.85p 하락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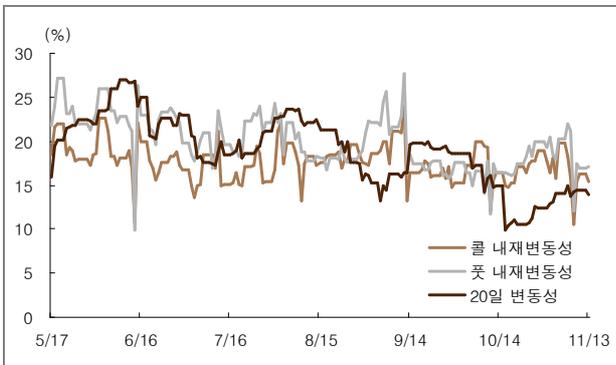
- 외국인: 396 계약 순매도
- 기관: 1,133 계약 순매수 / 개인: 1,046 계약 순매도

차익거래 잔고 추이



- 차익거래: 57 억원 순매도
- 비차익거래: 480 억원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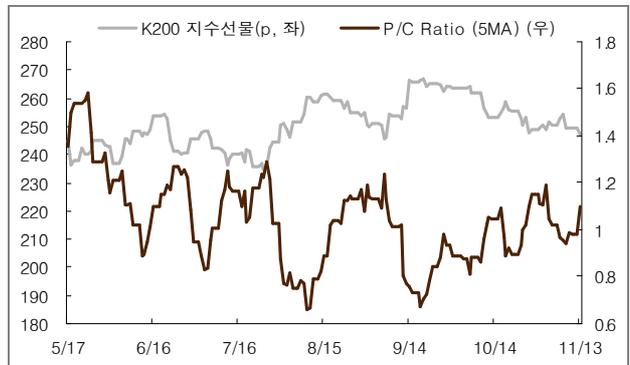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 대표 내재 변동성: 콜 15.4% / 풋 17.1% 기록
- 20일 역사적 변동성: 13.88% 기록

*** 데이터 불연속성은 선물 12년 9월물이 최근월물로 거래된 데 따른 것임

Put/Call Ratio



- 금액 기준 P/C Ratio(5MA): 1.10 기록

한 눈에 보는 증시 일정

월	화	수	목	금
5	6	7	8	9
韓> 10월 외환보유액 (\$323.46B, n/a, \$322.0B) 美> 10월 ISM 비제조업 (54.2, 54.5, 55.1) 유럽> 11월 섀넥스 투자자기대지수 (-18.8, -21.0, -22.2) 中> 10월 HSBC PMI 서비스 (53.5, n/a, 54.3) (11/4-5)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 (멕시코시티)	美> 대통령 선거, 양원 의회 선거 호주> 호주중앙은행 기준금리 결정 (3.25%, 3.00%, 3.25%)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5.0%, n/a, -4.8%) 9월 소비자신용지수 (\$11.365B, \$10.175B, \$18.123B) 유럽> 9월 유로권 소매판매 YoY (-0.8%, -0.8%, -1.3%) 그리스 긴축재정안 의회 표결 메르켈 유럽의회 연설	韓> 읍선만기일 9월 통화공급 M2 YoY (0.1%, n/a, 0.9%)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35.5만, 36.5만, 36.3만) 9월 무역수지 (-\$41.5B, -\$45.0B, -\$44.2B) 유럽> ECB 금리 공시 (0.75%, 0.75%, 0.75%) BOE 금리 공시 (0.50%, 0.50%, 0.50%) 中> (11/8-14) 제18차 전국대표회의 日> 9월 경상수지 YoY (68.7%, -52.7%, 4.2%)	韓> 금통위 금리결정 (2.75%, 2.75%, 2.75%) 10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0.2%, n/a, 1.0%) 美> 10월 수입물가지수 YoY (0.4%, -0.5%, -0.6%) 미시건대 소비자심리평가지수 속보치 (84.9, 82.9, 82.6) 中> 10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1.7%, 1.9%, 1.9%) 10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2.8%, -2.7%, -3.6%) 10월 산업생산 YoY (9.6%, 9.4%, 9.2%) 9월 소매판매 YoY (14.5%, 14.4%, 14.2%) 日> 10월 통화량 M2 YoY (2.3%, 2.4%, 2.4%)
12	13	14	15	16
유럽> (11/11) 그리스 2013년 예산안 의회 표결 유로존, EU 재무장관회의 中> (11/10) 10월 무역수지 (\$31.99B, \$27.30B, \$27.67B) (11/10) 10월 수출 YoY (11.6%, 10.0%, 9.9%) (11/10) 10월 수입 YoY (2.4%, 3.4%, 2.4%) 10월 신규 위안 대출 (505.2B, 590.0B, 623.2B) 10월 통화공급 M2 YoY(미확정) (14.1%, 14.5%, 14.8%) 日> 3분기 GDP QoQ 속보치 (-0.9%, -0.9%, 0.2%) 실적발표> 韓 현대미포조선, 현대상선, 농심, SK네트웍스, 디아이디	美> 10월 NFIB 소기업 낙관지수 (n/a, 93.0, 92.8) 하원 개회 유럽> 독일 11월 ZEW 현황 조사치 (5.4, 8.0, 10.0) 독일 11월 ZEW 전망 조사치 (-15.7, -10.0, -11.5) 실적발표> 韓 게임빌, 동양기전, 솔브레인, 동원F&B, LG디스플레이 美 홈데포, TJX 컴퍼니	韓> 10월 실업률 (n/a, 3.1%, 3.1%)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n/a, n/a, -5.0%) 10월 생산자물가지수 YoY (n/a, 2.6%, 2.1%) 10월 소매판매액지수 MoM (n/a, -0.2%, 1.1%) 9월 기업재고 MoM (n/a, 0.6%, 0.6%) FOMC 회의 의사록 공개 유럽> 9월 유로권 산업생산 MoM (n/a, -2.0%, 0.6%) 中> 제18차 당대회 폐막 실적발표> 韓 한섬, 한국전력, LG전자, 삼천리, 이수화학, 롯데삼강, STX조선해양 美 시스코 시스템즈, 아베크롬비&퍼치	韓> 10월 수출물가지수 YoY (n/a, n/a, -1.9%) 10월 수입물가지수 YoY (n/a, n/a, -2.4%)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n/a, 37.5만, 35.5만) 10월 소비자물가지수 YoY (n/a, 2.1%, 2.0%) 11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n/a, -8.00, -6.16) 11월 필라델피아 연준지수 (n/a, 2.0, 5.7) 유럽> 10월 유로권 CPI YoY (n/a, 2.5%, 2.6%) 3분기 유로권 GDP YoY 속보치 (n/a, -0.6%, -0.5%) 中> 10월 실질 FDI (미확정) (n/a, 1.0%, -6.8%) 실적발표> 美 월마트, 비아콤, 타겟	美> 10월 산업생산 YoY (n/a, 0.2%, 0.4%) 유럽> 9월 유로권 무역수지 SA (n/a, 9.5B, 9.9B) 실적발표> 美 델*, 겍*
19	20	21	22	23
韓> 10월 백화점 매출 YoY (미확정) 10월 할인점 매출 YoY (미확정) 美> 11월 NAHB 주택시장지수 10월 기준주택매매 MoM 실적발표> 美 로위스, 타이슨푸드	美> 10월 주택착공건수 MoM 10월 건축허가 MoM 유럽> 그리스 구제금융 특별 회의 日> BOJ 정책금리 실적발표> 美 HP, 베스트바이	美> 주간 MBA 주택융자신청지수 10월 경기선행지수 MoM 日> 10월 수출 YoY 10월 수입 YoY 실적발표> 美 세일즈포스닷컴*, 디어	美>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유럽> 11월 유로권 소비자기대지수 속보치 11월 유로존 PMI 제조업 속보치 11월 유로존 PMI 서비스 속보치 (11/22-23) 유로존 정상 회담 中> 11월 HSBC플래시 PMI 제조업	美> 블랙 프라이데이 실적발표> 韓 한국투자금융지주, 네오위즈 게임즈

☞ 주: 괄호안은(발표치, 블룸버그 예상치, 이전치) 순이며 예상치는 변동 가능. 이전치는 수정 값 미반영분 발표일자는 한국시간 기준 (단, 오전6시 이전에 발표되는 지표는 전일 기입)
실적발표일은 Bloomberg, 기업 공시 기준으로 작성 (변동 가능, *표시는 한국시간 당일 아침)